

영생의 비결을 아는 자가 구세주

음양을 벗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책에서도 골격의 말씀이 있고 살을 붙인 말이 있는 거와 같이 오늘날 성경이나 불경에도 그 골격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람이 그 골격의 말씀을 논하는데 그 골격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지 모르는 사람은 그 성경의 골격의 말씀을 모르는 자인고로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불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불경의 주인공이라면 그 골격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과 불경의 골격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영생인데 영생이 뭔지, 영혼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영생인지, 몸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영생인지 이것을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곧 영이 아닌 육이 죽는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요, 죄만 해결이 되면 육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사명과 구비 조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만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구세주인고로 죽지 않는 비결의 학설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입술로만 아주 흔

하지만 잘난 척하고 이제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구세주가 아니라 구세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겸비해야 할 조건이 바로 능력과 권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구세주는 이 지구 땅위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사람이 성경상이나 불경상의 구원론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성경상이나 불경상의 구세주론과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성경과 불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고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경과 불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더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이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므로 그걸 환원해서 다시 말하면 전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귀 옥에 갇혀 있는고로 얘기보와 같은 마귀 옥에 있는 하나님이 그 얘기보와 같은 마귀 옥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태어



구세주 조희성님

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나 불경에 포인트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골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

성경을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을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여자 사람을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그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 옛날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지금은 흙을 빚

어서 사람을 못 만든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의 후손인 인간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에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야 하늘나라인고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곳이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리니 너희 마음 속에 있나니라."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지 사람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음양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고로 아담과 해와가 흙으로 빚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나 에덴동산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고로 아담과 해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던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바로 영원영원 전서부터 영원무궁토록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동산에서 사시다가 그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점령을 당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은 후에는 마귀가 나라는 주체 의식이 되어 하나님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음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음양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음양의 법칙을 따지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음양의 법칙을 따지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불경에 "그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지가 없는 세계다." "고자가 복이 있다."라고 쓰여 있는고로 고자가 되어야 구원이지만 고자가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바로 마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음양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

나야 구원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이란?

구원의 자격이 바로 하나님이고, 구원의 자격이 바로 고자인고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고자의 성품을 가져야 구원이지만 남자, 여자의 성품을 가지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과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명과일이 뭐라는 걸 하나 하나 껌껌 벗기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과일인 것입니다. 또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생명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활을 논하고로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영적 무덤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마귀 옥에 갇혀 있는고로 마귀 옥에서 석방되어 나와 다시 나라를 주체 의식이 하나님이 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이요,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 3월 22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피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탄생

옛사람, 죽을 사람, 이기적인 짐승 같은 사람도 피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새사람, 불사신(不死身) 양심적인 성인군자도 정확히 피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의 정신(精神)과 신체(身體)는 바로 피의 건강과 정결함을 바탕으로 하는 피갈음을 통해서 재생(再生)되기 때문이다. 재생이란 '거듭남' 인즉슨 이는 성경이나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즉 '성령으로 거듭나라' '중생(重生)하라' '나를 이겨라' 라고 역설하고 있다.

승리제단의 도(道)는 종교인이나 수행자가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곳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변화하여 신(神)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이다. 사람이 본래 신에서 왔고, 신으로 다시 환원되기 위해서는 거짓, 불의함, 온갖 악을 이기고, 온전히 선과 의를 걸쳐 입은 양심체(성령聖靈)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원불멸한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는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완벽한 이론과 실천의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온전한 이해와 확신 속에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참

도장(道場), 승리제단에서만 가능하다. 승리제단의 역사는 바로, 피의 변화를 통한 새 사람, 신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나'의 피의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자.

오늘의 '나'는 부모님의 피로써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먼저, 나라는 개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닌 부모님의 피로써 만들어졌다. 때문에 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독자적인 존재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부모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나라는 존재의 근본 출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과연 나라는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거나 수행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범하지도 않았던 악한 습성들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는 필연적 이유가 옛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분석·파악을 못하니 업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다. 억조창생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무위에 그



달마대사는 혈맥론에서 스승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미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조상의 업력(業力)이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 틀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업장(원죄 유전죄 자범죄) 소멸의 의미를 알아야

앞서도 말했듯이 옛사람은 결코 부모님만의 유전인자가 아니다. 그 위에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진 최초의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유전인자가 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산 것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도 지장을 주지만 조상 대대로 잘못 산 그 악습과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대의 내가 거듭나기 위한 수행과 실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 이면의 숨겨진 원인이 바로 조상 대대로의 무겁고 두터운 업장(業障)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방해가 되는 무수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력과 인내 가지고는 어렵다.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좋은 얘기나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과 생각의

로 쉽지 완전히 인간 개조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지혜와 총명, 인내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툴 모델(본보기)이 필요하고 나를 이끌어줄 참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무거운 죄업을 나의 발심(發心)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이고 나약하기 그지없다. 언제든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팽개치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원죄와 유전죄 자범죄의 그 과중한 무게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고 용기와 힘을 주며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안내해 줄 스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참스승의 지혜와 경험 없인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불가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는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 우여곡절 끝에 조그마한 성장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노련한 선배스승의 도움을 받으면 낮은 단계의 성장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보다 쉽게 빠르게 전수를 받아서 급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스승의 도움과 안내없이 꿈도

꿀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참스승의 자격이 될까? 참스승은 먼저 그 길을 먼저 걸어서 경험하여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어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 또 말씀의 통달한 이치를 보고 듣고 체득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법이다.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의문(무지의 산물)과 장애물(육적·영적문제)이 있다. 그때마다 난관과 역경에 부딪쳐 있는 그 상황을 물리치는 지혜와 요령, 경험을 살려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과 안내를 통해 온전한 수행이 상당 시간 지속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생성하는 피가 변하기 시작한다. 옛사람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피는 몸 밖으로 배출되고, 항상 맑고 깨끗하여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새사람의 피가 생성되어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바로 승리제단에는 그러한 훌륭한 스승이 있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올바른 수행자가 모이기에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구월심(日久月深) 도를 닦아 수행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바로 옛사람의 생각과 몸이 없어지고, 늘 바르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행하는 새사람, 영생의 사람 신일합일(神一合一)의 경지에 오른 신(하나님, 부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간의 도전